

# 전통짜임의 활성화를 위한 조형적 분석

## Shape Analysis for the Activation of a Traditional Zzaim

남궁선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Sun Namgoong([namgoongs@hanmail.net](mailto:namgoongs@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전통공예기술인 짜임을 현대 가구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조형적인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된 짜임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가구를 제작하는 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짜임을 이용한 가구로 생성될 수 있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 판재+판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 판재+각재 2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 판재+각재 3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구의 위치에 따라 사용되는 짜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가구의 상부에 주로 사용되는 짜임의 종류와 가구의 중앙부에 사용되는 짜임, 가구의 하부에 주로 사용되는 짜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짜임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짜임은 그 사용되는 위치나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그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한 짜임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처음 짜임을 접할 때는 어떤 짜임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구의 조형분석을 통해 가구의 형태별, 가구의 위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짜임을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장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짜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쓰임 | 위치 | 가구형태 | 짜임 적용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veness of zzaim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to combine two or more materials to make an angle or to weave them to make a slope side) and systematically classified these techniques to help furniture manufacturers effectively utilize them in the design of contemporary furniture.

From this data, furniture manufacturers can have benefits to understand which type of zzaim techniques will be appropriate to their plan of building furniture, and practically use relevant techniques in the field.

This study classified four different applications of zzaim techniques depending on sites, such as (1) the top, (2) middle body, (3) lower body, and (4) legs of furniture.

In summary, zzaim techniques are differently applied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sites and formative types of furniture. This feature makes general furniture manufacturers who want to apply zzaim techniques for the first time have hard time to understand which kind of technique should be applied to which part. Recognizing this problem, this study expects general manufacturers as well as master artisans to more effectively utilize zzaim techniques by providing the systematic data on the formative analysis of types of furniture and application sites.

■ keyword : | Used | Location | Furniture Forms | Zzaim Apply |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5C-2011-2-G00061)

접수번호 : #130206-001

접수일자 : 2013년 02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3월 11일

교신저자 : 남궁선, e-mail : [namgoongs@hanmail.net](mailto:namgoongs@hanmail.net)

##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통 가구는 짜임이라는 구조에 의해 못이나 접착제의 사용을 피하고 서로 걸구되어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져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구의 견고함이나 의장적인 면에서 탁월한 가구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전통 짜임기법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통의 기술인 짜임이 무형문화재의 기술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짜임을 알리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활용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3].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공예기술인 짜임을 현대 가구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조형적인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짜임의 활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무형문화재를 통한 전승의 개념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전통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는 일반인들이 전통공예기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공예기술인 짜임을 현대 가구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가구디자인에서 조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본 형태를 분석하여 각각에 맞는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짜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짜임은 장인들에게만 활용도가 높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관계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각각의 짜임을 가구의 어느 부분에 사용하여 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짜임을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 장인들(조석진 외 14명)과, 목공가구 전문가들에게 제작법의 조언을 얻어 기초자료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구 조형분석에서는 짜임으로 가구를 제작하는데 있어 나올 수 있는 형태의 경우를 전문가들과 파

악하여 각각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의 대표 형태를 뽑아 그 형태들에 맞는 짜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의 형태별 분석과 사용할 수 있는 짜임의 분류를 하여 제시함으로써 처음 짜임을 이용해 가구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 활용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짜임의 활성화와 교육적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연구범위로는 가구를 분류하는데 있어 인체 지지용 가구, 작업용 가구, 정리 수납용 가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박스 형태의 기본이 되는 정리 수납용 가구를 중심으로 짜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분석하고, 짜임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 II. 짜임의 분석

### 2.1 짜임의 종류 및 분류

전통적으로 건축이나 가구에 사용되었던 짜임의 종류는 그 수를 정확히 정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작업자가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짜임의 형태를 달리 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짜임은 수 백 가지 방법으로도 그 종류가 파생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짜임의 종류를 수집하는데 있어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짜임의 종류를 파악하였고, 장인들의 1:1 면담을 통한 감수를 받아 명칭과 사용방법, 각 짜임이 쓰여 지는 위치 등을 분석하였다 [1][7].

짜임은 형태의 특징별로 장부짜임, 턱짜임, 맞짜임, 연귀짜임, 판재짜임 5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짜임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장부짜임 13가지, 턱짜임 19가지, 맞짜임 6가지, 연귀짜임 20가지, 판재짜임 13가지로 분류되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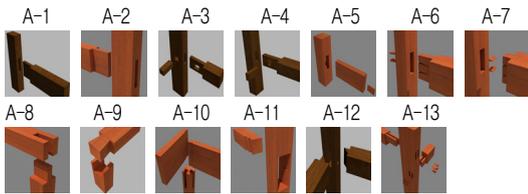


그림 1. 무형문화재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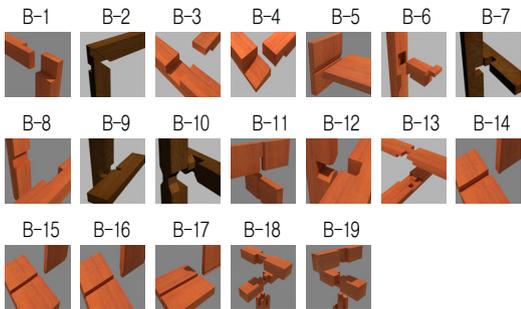


그림 2. 분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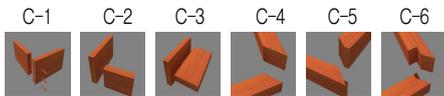
(1) 장부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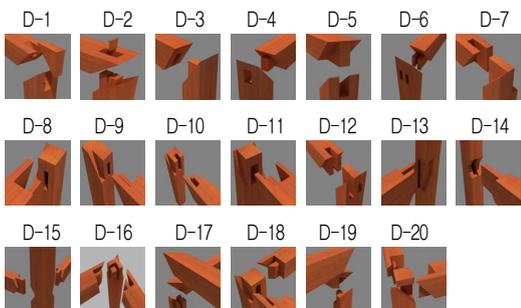
(2) 턱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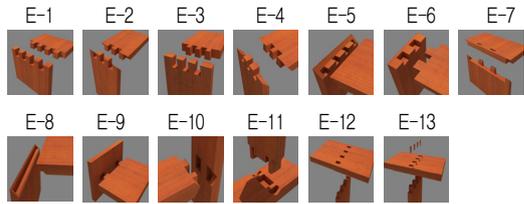
(3) 맞짜임



(4) 연귀짜임



(5) 판재짜임



2.2 짜임의 활용

짜임은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제작됨으로써 그 힘을 달리 받는다.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더라도 장부의 모양이나 결합되는 구조 방법에 따라 제작 후의 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 미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짜임들 또한 다양각색이다. 그리고 짜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목재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짜임은 다르다. [표 1-표 5]는 짜임별로 목재를 사용하는데 각재와 각재의 연결, 각재와 판재를 연결할 때, 판재와 판재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짜임과 짜임이 목재의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표이다[2].

표 1. 장부짜임의 쓰임 및 위치

고유 번호	짜임의 쓰임			짜임의 위치		
	각재 + 각재	각재 + 판재	판재 + 판재	재의안쪽면 + 재의 끝	재의끝 + 재의끝	재의안쪽면 + 재의안쪽면
A-1	○	○		○		
A-2	○	○		○		
A-3	○			○		
A-4	○	○	○	○		
A-5	○	○		○		
A-6	○	○		○		
A-7	○	○		○		
A-8	○				○	
A-9	○	○			○	
A-10	○	○			○	
A-11	○			○		
A-12	○			○		
A-13	○			○		

표 2. 턱짜임의 쓰임 및 위치

고유 번호	짜임의 쓰임			짜임의 위치		
	각재 + 각재	각재 + 판재	판재 + 판재	재의안쪽면 + 재의 끝	재의끝 + 재의끝	재의안쪽면 + 재의안쪽면
B-1	○		○		○	
B-2	○		○		○	
B-3	○		○	○		
B-4	○		○		○	
B-5	○		○	○		
B-6	○			○		
B-7	○					○
B-8	○	○				○
B-9	○	○				○
B-10	○					○
B-11	○		○			○
B-12	○		○			○
B-13	○		○			○
B-14	○		○	○		
B-15	○		○	○		
B-16	○		○	○		
B-17	○		○	○		
B-18	○			○		○
B-19	○			○		○

표 3. 맞짜임의 쓰임 및 위치

고유 번호	짜임의 쓰임			짜임의 위치		
	각재 + 각재	각재 + 판재	판재 + 판재	재의안쪽면 + 재의 끝	재의끝 + 재의끝	재의안쪽면 + 재의안쪽면
C-1	○		○		○	
C-2		○			○	
C-3	○		○	○		
C-4	○		○		○	
C-5	○		○		○	
C-6	○		○		○	

표 4. 연귀짜임의 쓰임 및 위치

고유 번호	짜임의 쓰임			짜임의 위치		
	각재 + 각재	각재 + 판재	판재 + 판재	재의안쪽면 + 재의 끝	재의끝 + 재의끝	재의안쪽면 + 재의안쪽면
D-1	○				○	
D-2	○				○	
D-3	○				○	
D-4	○				○	
D-5	○				○	
D-6	○				○	
D-7	○				○	
D-8	○				○	
D-9	○				○	
D-10	○				○	
D-11	○				○	
D-12	○				○	

D-13	○			○		
D-14	○			○		
D-15	○			○		
D-16	○				○	
D-17	○				○	
D-18	○				○	
D-19	○				○	
D-20	○				○	

표 5. 판재짜임의 쓰임 및 위치

고유 번호	짜임의 쓰임			짜임의 위치		
	각재 + 각재	각재 + 판재	판재 + 판재	재의안쪽면 + 재의 끝	재의끝 + 재의끝	재의안쪽면 + 재의안쪽면
E-1			○		○	
E-2			○		○	
E-3			○		○	
E-4			○		○	
E-5			○		○	
E-6			○		○	
E-7			○		○	
E-8			○		○	
E-9			○	○		
E-10			○	○		
E-11			○	○		
E-12			○	○		
E-13			○	○		

### III. 가구의 형태분석

#### 3.1 가구의 분류

##### (1) 인체 지지용 가구

인체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체구>의 본질에 가까운, 직접 인체를 지지하는 가구이다. 작업의자, 휴식의자, 침대 등이 이에 속한다.

##### (2) 작업용 가구(준 인체계 가구)

간접적으로 인간에 관계하고 인간 동작에 보조가 되는 가구이다. 테이블, 받침대, 주방 작업대, 책장, 화장대, 작업용 의자 등이 이에 속한다.

##### (3) 정리 수납용 가구(건축계 가구)

수납의 크기, 수량, 중량 등과 관계되며 실내 기둥간의 치수, 벽의 길이, 천장의 높이 등은 공간 조건에 지배되는 것으로 건축의 일부 성격을 지니며 그 원점은 바

다 면에 있다. 정리, 수납을 목적으로 하는 상자류와 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선반류로 나뉘며 벽장, 선반, 서랍, 칸막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가구의 분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기본형태가 되는 정리 수납용 가구를 중심으로 박스 형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짜임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가구 스타일을 분석하고, 짜임을 파악한다. 가구의 기본 형태는 짜임으로 제작된 가구를 자료 조사하여, 제작자들의 면접을 통해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표 6. 가구의 기본형태 도출을 위한 방법

조사대상물	짜임으로 제작된 가구
조사대상	장인 15명, 목가구전문가 10명, 전공대학생 20
조사방법	1:1 개별 면접을 통한 추출 및 분류

### 3.2 가구의 기본형태

가구의 기본 형태인 사각 박스를 짜임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판재와 판재로 이루어진 형태, 두 번째로 판재와 각재(2축)로 판을 만들어 연결하는 형태, 세 번째로 삼방에서 만난 각재로 골재를 만들고 그 안에 판을 연결시켜 사각박스를 만드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타입의 기본 틀에서 판을 내려 다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박스의 형태에 다른 부재를 연결하여 다리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박스 안쪽으로 널을 끼워 칸을 분할하여 가구의 기능성과 조형성을 더한다.

표 7. 가구의 기본구조와 짜임

가 구			
	판재	판재+각재(2축)	판재+각재(3축)

### 3.3 가구의 결합방법

다음은 박스를 기본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형태로서, 짜임의 다양한 활용으로 제작될

수 있는 가구의 형태를 목공가구를 전공한 전문가들에 의해 추출한 것이다.

#### (1) 판재+ 판재의 결합

판재와 판재의 결합으로 통판을 사용한다. 주로 판재 짜임으로 연결시켜 구조를 완성한다. 많이 사용되는 짜임으로는 사개짜임, 주먹장사개짜임으로 박스의 모서리를 연결시켜 제작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숨은 주먹장과 통판 연귀짜임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천판에 끼워지는 형태에서는 턱솔짜임으로 판과 판을 결합시킨다.

기본 박스의 형태에서 중간에 판을 끼워 칸을 분리하는 형태와 옆판을 이용하여 다리를 만드는 형태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그림 3. 판재+ 판재 결합의 가구

#### (2) 판재+ 각재(2축)의 결합

옆판을 제작할 때 각재와 각재로 틀을 만든 후에 가운데 판을 끼워주는 형태의 가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에서도 박스 형태와 각재를 이용한 다리를 만드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양쪽 측면의 구조를 각재로 틀을 잡고 알판을 끼워 제작하는 방법이다. 각재부분은 연귀짜임이 주로 사용되고, 각재에 알판을 끼울 때는 턱솔짜임 등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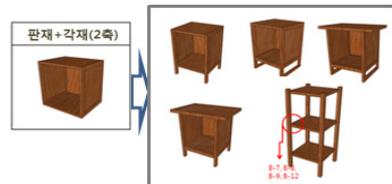


그림 4. 판재+ 각재(2축)결합의 가구

(3) 판재+ 각재(3축)의 결합

각 모서리가 세 면이 만날 수 있도록 각재로 제작한 후에 판을 끼워주는 형태로 박스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각재를 이용해 다리를 만드는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다. 모든 면을 각재로 틀을 잡고 알판을 끼워주는 형태이다. 각재 3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구조로 삼방연귀 짜임이 주로 사용되고, 알판을 끼울 때는 턱솔짜임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구의 상부는 삼방연귀로 제작하고 각재를 이용하여 다리를 만드는 형태로도 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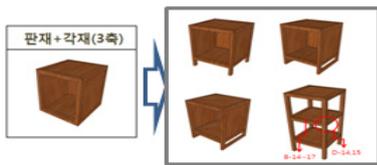


그림 5. 판재+ 각재(3축)결합의 가구

(2) 판재+ 판재-다리일체형

판재와 판재의 결합으로 옆판을 이용하여 다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가구의 상부는 박스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개짜임 류와 통판연귀짜임 등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고, 가구의 하부는 판을 이용하여 다리로 제작한다. 그리고 하부는 널을 B-14~17이나 E-9~13을 이용하여 끼워준다. 여기서 E-9~13을 바깥면에서 짜임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장식적 효과를 표현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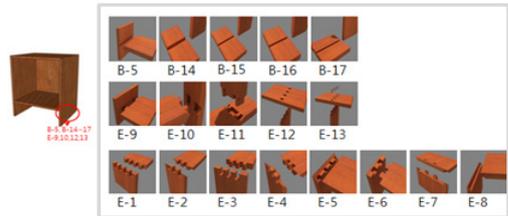


그림 7. 판재+ 판재-다리일체형

3.4 가구의 형태에 따른 짜임적용

다음은 각 가구별로 제작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짜임을 대표 가구별로 분석하였다.

(1) 판재+ 판재-박스형

판재와 판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박스를 만들고 중간에 널을 끼워 칸을 분리 할 때 사용되는 짜임을 분석하였다. 상부와 하부의 모서리 부분에는 E-1~8의 짜임으로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고, E-1~4,6,7은 짜임의 형태가 겹으로 드러나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E-5와8은 속으로 숨어 겹에서 나무결이 연결이 되도록 제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중간에 널을 끼울 때 B-7~12와 같이 두 판을 교차하여 칸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B-14~17과 같이 한쪽에 턱을 주어 끼워주는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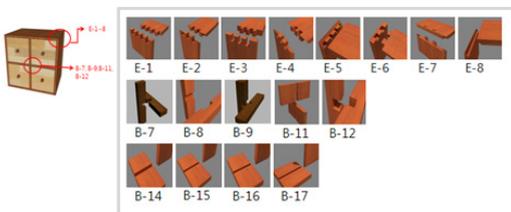


그림 6. 판재+ 판재-박스형

(3) 판재+ 판재-개판형

판재와 판재의 결합이지만 박스형이 아닌 천판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옆판을 천판에 끼우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짜임은 천판에 옆판을 끼울 때나 하부의 널을 끼울 때 모두 턱짜임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A-4방두산지장부짜임을 이용해 판을 더 견고하게 끼우고 장식적인 표현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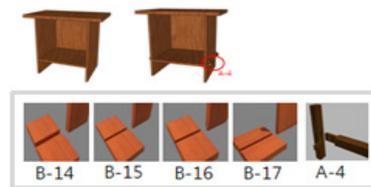


그림 8. 판재+ 판재-개판형

(4) 판재+ 각재(2축)-박스형

판재와 각재의 결합으로 옆판을 각재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알판을 끼워주어 판을 만들어 옆판을 만들고, 그 판에 상판을 끼워주는 형태이다. 여기서 옆판을 제작할 때는 연귀짜임 D-1~12를 이용해 틀을 만들고, 그 안쪽에 홈을 파서 B-14~17의 턱짜임을 이용하여 끼워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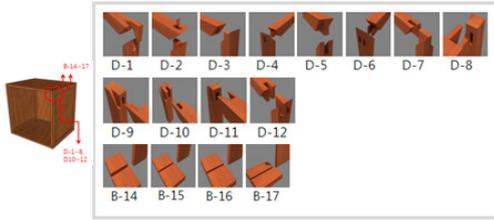


그림 9. 판재+ 각재(2축)-박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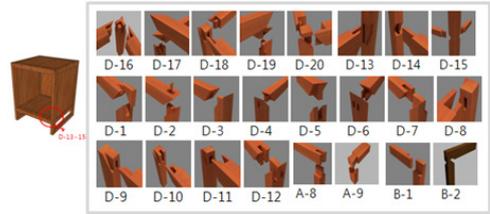


그림 12. 판재+ 각재(3축)-다리일체형

(5) 판재+ 각재(2축)-개판형

천판에서도 각재로 틀을 만들고 판을 끼워 만들 수 있다. 각재를 연결하는데 연귀짜임과 장부짜임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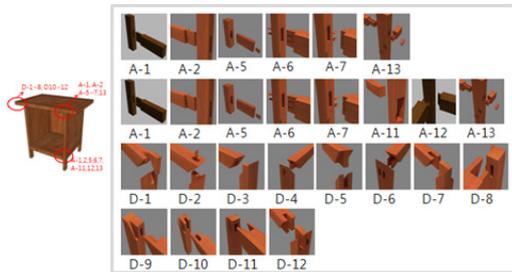


그림 10. 판재+ 각재(2축)-개판형

(6) 판재+ 각재(3축)-박스형

각재의 세 모서리에 삼방연귀짜임을 이용해 연결하고 판을 끼워주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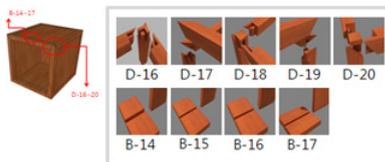


그림 11. 판재+ 각재(3축)-박스형

(7) 판재+ 각재(3축)-다리일체형

가구의 상부는 삼방연귀짜임으로 연결하여 구조를 이루고, 다리부분은 각재의 연결을 주로 연귀짜임D-1~12로 하고, A-8, 9, B-1, 2로도 제작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4.1 가구의 상부와 하부에 사용되는 짜임

가구를 제작하는데 있어 상부와 하부에 사용될 수 있는 짜임으로 다음과 같은 짜임이 주로 사용된다. 주로 연귀짜임과 판재짜임을 이용하여 가구의 상부와 하부를 제작할 수 있다.

표 8. 상부와 하부에 사용되는 짜임 분류

	세부짜임
장부짜임	A-8외측장부짜임, A-9주먹장부짜임, A-10긴주먹장부짜임
턱짜임	B-1반턱짜임, B-2연귀턱짜임, B-4경사반턱짜임, B-18기둥사개짜임A, B-19기둥사개짜임B
맞짜임	C-1맞짜임A, C-2맞짜임B, C-4맞연귀짜임, C-5안연귀짜임, C-6반연귀짜임
연귀짜임	D-1산지연귀짜임, D-2내측벌리뼈기연귀짜임, D-3숨은장부연귀짜임, D-4막장부연귀짜임, D-5외측장부연귀짜임, D-6쌍장부연귀짜임, D-7개심연귀짜임, D-8연귀장부짜임A, D-9연귀장부짜임B, D-10연귀장부짜임C, D-11연귀장부짜임D, D-12연귀주먹장부짜임, D-16, 17, 18, 19, 20 삼방연귀짜임
판재짜임	E-1사개짜임, E-2연귀사개짜임, E-3주먹장사개짜임, E-4연귀주먹장사개짜임, E-5숨은주먹장사개짜임, E-6반주먹장짜임, E-7통판연귀장부짜임, E-8통판연귀짜임

4.2 가구의 중앙부에 사용되는 짜임

가구를 제작하는데 있어 중앙부에 주로 사용되는 짜임으로 가구의 칸을 나누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턱짜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또한 장부짜임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표 9. 중앙에 사용되는 짜임분류

	세부짜임
장부짜임	A-1 숨은장부짜임, A-2막장부촉짜임, A-3막이산지장부짜임, A-4방두산지장부짜임, A-5데릴장부짜임, A-6벌림썩기장부짜임, A-7지옥장부짜임, A-11내림턱열장짜임, A-12장부내촉연귀짜임, A-13상장부맞짜임
턱짜임	B-3T형반턱짜임, B-5빗턱짜임, B-6아래턱짜임, B-7십자반턱짜임, B-8십자턱짜임, B-9십자걸침턱짜임, B-10연귀반턱짜임A, B-11연귀반턱짜임B, B-12연귀반턱짜임C, B-13십자반턱짜임, B-14턱짜임B, B-15턱솔통널기짜임, B-16솔턱짜임, B-17주먹장턱짜임
맞짜임	C-3허릿댐짜임
연귀짜임	D-13반연귀숨은장부짜임, D-14제비촉장부짜임, D-15연귀쇠목턱짜임
판재짜임	E-9쌍장부짜임, E-10연귀장부짜임A, E-11연귀장부짜임B, E-12통장부짜임, E-13벌림썩기통장부짜임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구를 짜임으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디자인될 수 있는 조형을 분석하여 각 가구의 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짜임을 적용하였다. 짜임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가구를 제작하는 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짜임을 이용한 가구로 생성될 수 있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 판재+판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 판재+각재 2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 판재+각재 3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각각의 경우로 나올 수 있는 형태에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짜임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사용자가 그 형태에 맞는 가구의 제작에 있어 필요한 짜임을 파악할 수 있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위치에 따라 사용되는 짜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가구의 상부에 주로 사용되는 짜임의 종류와 가구의 중앙부에 사용되는 짜임, 가구의 하부에 주로 사용되는 짜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짜임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짜임은 그 사용되는 위치나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그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한 짜임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처음 짜임을 접할 때는 어떤 짜임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가구의 조형분석을 통해 가구의 형태별, 가구의 위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짜임을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장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짜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짜임의 체계적인 분석과 가구의 조형에 따른 연구로 인해 전통공예기술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고, 현대생활에 활용되어 일반적인 기술로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짜임이 장인들에게 국한된 기술이 아닌 대중적이고 산업화 시키는 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본 연구의 내용이 기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남궁선, 정수경, 이유리, "천년전주 전통기술의 지적자산을 통한 산업화 연구",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보고서, (사)천년전주명품사업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 [2] 남궁선, 이유리, "전통 목재짜임 기술의 분류 및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제13권, 제1호, pp.27-47, 2010.
- [3] 남궁선, 정수경, 김태호, "전통공예기술의 현대적 활용",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12호, pp.181-189, 2010.
- [4] 소혜령, 조선조 목가구의 결구법을 응용한 목조형 가구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5] 이용기, 목조건축물과 목가구의 결구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5.
- [6] 최웅, 목재 결구법의 구조적 기능성과 조형적 장식성을 활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협성대 석사논문, 2005.
- [7]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1982.
- [8] 배만실, 이조목공가구의 미, 보성문화사, 1980.
- [9] 김희수, 김삼기, 목가구, (주)대원사, 2004.

저 자 소 개

남 궁 선(Sun Namgoong)

정회원



- 1995년 2월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미술학사)
- 2000년 8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미술학석사)
- 2011년 2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제조공학과 박사

<관심분야> : 가구디자인, 전통공예, 문화원형, 문화콘텐츠